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봉사관을 완공하고 헌당예배

3월 10일(수) 정오 12시에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위한 집으로



▲ 2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 짓고 헌당예배를 기다리는 봉사관. 이 봉사관은 장애인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일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내면적인 예배, 교육훈련 등에 집중하여 온 집약된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사회 봉사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회는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봉사관을 완공, 오는 3월 10일(수) 정오(12시)에 봉사관 헌당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봉사관은 우리 교회의 목표의 하나인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건물로 자폐아들을 위한 조기교육센터의 운영, 장애인 복지를

위한 행사의 장소,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지역민의 비정치적, 비영리적 집회의 장소, 공공의 이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집회장소,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결혼장소 등으로 제공된다.

교회는 설립40주년을 맞으며 대 사회적 선교와 관심의 일환으로 봉사관을 건립, 운영키로 했다. 봉사관은 대지 363평, 연건축면적 875.8평으로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되어있다. 지상 1층, 2층은 자폐아를 위한 조기교실로 쓰이고 지하 1,2층은 집회실, 회의실, 결혼식장으로 500석 규모이고, 지하 3층은 전기실, 기계실, 120석 정도의 집회실 및 회의실로 쓰일 예정이다. 지하 1,2,3층도 주일에 교회학교 집회실 및 회의실로 쓰일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1990년 5월부터 한국 밀알선교단으로부터 장애아동 조기교실(정신장애 및 자폐아)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해 교회학교 사랑부(성년, 아동)와 에바다부(농아)를 신설하여 미력하나마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관 건립으로 이런 교육과 관심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제2회 6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3월 8일, 오후 1시 개강, 총 10주 동안
신성중 목사의 로마서 강해와 특강으로

총현교회 부설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은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와 복음전도"라는 주제하에 3월 8일 오후 1시 개강하여 5월 10일까지 총 10주간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학기에는 제1교시(오후 1시 - 2시 30분)에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로마서 강해, 제 2교시(오후 2시 50분 - 4시 20분)에는 복음전도에 관한 여러 목사들의 특강으로 진행되는데 특강 강사는 김준곤, 하용조, 옥한흠, 이만신, 박종순, 이요한, 길자연 목사와 차영배, 나일선(Marlin Nelson) 교수이다.

교회는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1990년 가을에 제1학기로 시작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매학기마다 천여명의 전국 목회자가 모여 강의를 듣고 친교를 나누며 목회정보를 교환 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신청을 끝냈다.

이 세미나에 참가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3월 8일까지 교회 교육국 (전화 552-820, (교)504, FAX 567-6073)에 신청하면 된다.

날 짜	제 1 교 시	제 2 교 시
3. 8	로마서 연구 (신성중 목사 총현교회 당회장)	기독교 21세기의 전망(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3. 15		양육을 위한 목회적 계획(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3. 22		복음 전도의 신학(차영배 목사·총신대 학장)
3. 29		한국 교회 전도 현실과 그 전망(하해룡 목사·변영교회 담임)
4. 5		부흥회와 교회 성장(이만신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
4. 12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Marlin Nelson·ACTS 교회성장학교수)
4. 19		성공적인 총동원 전도(박종순 목사·총신교회 담임)
4. 26		재자 양성과 성령의 역사(옥한흠 목사·사랑의 교회 담임)
5. 3		전도와 교회 성장(이요한 목사·세계교회성장연구소장)
5. 10		목회자의 영성과 부흥(길자연 목사·왕성교회 담임)

안수집사 부부 연합기도회

안수집사회(회장 김인관 집사)에서는 오는 3월 11일 오후 7시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특강과 함께 친교, 기도회로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교회 각 기관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정성과 열정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감당하여 오면서 금년들어 첫 행사로 부부 연합 기도회도 갖게 되는데 당일 7시에 모여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다 함께 기도원으로 출발하여, 특강과 친교시간, 기도회 등을 하고 오후 11시 40분 기도원에서 출발하여 교회로 오는 일정표를 마련하였다.

총현상조회 직통전화

총현상조회는 그동안 직통전화 없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직통전화를 신설했다. 직통전화번호는 552-7750, 위치는 지하주차장 차량봉사실에 임시로 사무실을 쓰고 있다. 상을 당한 가정에서는 상조회로 연락하면 상가에 관한 일체 업무를 도움 받을 수 있다.

전화로 복음을 700-8102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전화로 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텔레복음사에서 이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전화설교는 700-8102를 걸어 안내에 따르면 된다. 설교는 3분 정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소개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3월의 게시판

- 3월 1-4일 / 홍콩교회 부흥회
- 6일 /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주간성경공부·찬양대
원양성부·교사양성부)
- 8일/ 전국목회자세미나 -제2회
6학기 개강
- 8,9일/ '93 총현미주 선교찬양대
수련회
- 10일/ 봉사관 헌당예배
- 10일/ '93 총현전도대 개강예배
- 14일 / 장학금 전달식
- 16일 / 군목후보생 수련회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3월 8일, 미주찬양대 수련회 설교
2. 당회장 신성중 목사
· 3월 9일, 미주찬양대 수련회 설교
· 3월 13일,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20주년 기념예배설교

도서관 4층으로 이전

교회는 도서관을 4층으로 이전했다. 그동안 도서관은 참고 열람실과 일반 열람실로 나누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열람실을 없애고 18석 정도의 참고 열람실만 만들어 도서관 이용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도서열람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김창인 원로목사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설교

김창인 목사는 지난 2월 27일(토) 영락교회당에서 개최된 3.1절 민족화합기도회 및 직장선교세미나에서 설교(베후 3:8-12)를



통하여 3.1절 신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의 소망을 강조하였다. 전국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회장 김천재 장로)와 민족 화합기도모임(대표 정근모 장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모임에는 각 직장 신우회 대표들과 민족화합기도모임 회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제1부 민족화합기도회에 이어 제2부에는 김준곤 목사의 21세기 선교전망, 김영길 박사의 창조과학전망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특히 본교회 마리아 여전도회 8지회와 21지회는 전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금년부터 특별후원을 하고 있어 직장전도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

충현강단



씨뿌리는 비유

(마 13:1-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 12:39,40)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 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비유의 삶의 정황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미쳤다. 귀신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종아 하는 사람이라 비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들과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장바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들과 다르니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 라 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한 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 그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삶의 정황을 알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 비유의 내용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씨뿌리는 비유는 삶의 정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주변에 팔리는 농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선 밭을 갈고 한편에선 씨를 뿌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아라. 일부는 옥토에 떨어진 다. 옥토에 사분의 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는 일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니

에 의해서 거둢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3. 말씀이 주는 교훈

첫째는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천국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현재적으로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교회에 천국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의 확장성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금방 씨가 돌아나지는 않지만 언제인가는 씨가 돌아나서 거기에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처럼 천국은 결국 확장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할 때에 천국이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또 물도 주어야 하는데, 바로 기도가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마다 은혜의 이슬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즉 나는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좋은 땅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쁜 땅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비리고 모든 돌 같은 것은 다 주어야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나는 어느 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즉 내가 30배, 60배, 100배인가. 아니면 전혀 싹도 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는 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만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데 있는 것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벽에 은혜의 이슬이 없기 때문에 자라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 보면서 특별히 열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따라 모든 것이 바로 보인다

마침내 우리에 보면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이야기와 같다. 귀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했고, 몸을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했고, 코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빵과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지만 결국 사람은 동굴의 우상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문제는 전제를 보지 못하고 우편면 보편 모든 것이 만면에 빠져 있다.

우리는 먼저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 눈을 먼저 여야 한다. 내 눈은 결코 공이아 아니며 해보았자 다 사실과는 다른 잘못이다. 세상은 세 가지 종류의 소경이 있다. 먼저 세상은 자연을 못보는 육적 소경들이 있다. 다음에는 공과 문화를 보지 못하는 문맹이 있고, 끝으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맹(靈盲) 소경(盲人)이 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 눈을 따라 사물에 보이고, 영리가 보이고, 회생과 봉사가 보인다.

글 / 신성종 목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비밀이 있지만 성경에는 십대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비밀은 천국, 예수님의 재림, 구원 섭리,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교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불법, 믿음과 경건에 관한 내용 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에서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택함받은 자들이 천국의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좀더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합께 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를 보면 나단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만약의 경우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왕이여 왜 왕이 범죄를 했습니까? 왜 음행을 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삼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지만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단을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로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나단이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때에 비유로 얘기한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적대감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삶의 정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동기가 있고,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정황은 대체로 그 비유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록되지 아니한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제나 에 새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한대 아이들아 장터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죄 용서의 기쁨을 알고나니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 지 형
(초등4부 믿음 7반)

오늘부터 겨울 성경 학교가 시작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날씨가 무척 추워졌다. 나는 속으로 기도하며 출지만 많은 친구들이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갔다. 교동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첫날부터 성가대를 서지 못하였다. 성가대를 못 서니까 하나님께 죄송했다. 예배시간이 되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천부어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몹시 팔이 아팠지만 찬양을 하면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이 기쁨을 알고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간식 만들기를 하였다. 우리반 선생님과 여자 아이들은 과일과 야채를 썰고 남자들은 땅콩을 깬다. 샐러드를 만들어 빵에 싸 먹으니까 맛이 일품이었다. 우리반이 같이 합동수련회로 갔던 것보다 더 좋았다.

지난 3일 동안의 선생님의 수고와 믿음의 보답을 하는 것은 곧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고 주께처럼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크게 외쳐본다.



지난 1월 14일 중등2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겨울수련회가 지난 3월2일 청년1부 수련회를 끝으로 금년도 교회학교 수련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

각 부서의 특색에 맞게 교회당과 충현기도원에서 진행된 겨울수련회는 겨울수련회의 취지에 맞게 금년 한 해를 계획하고 내실을 기하는 수련회로 모인 점이 특색이었다. 따라서 전 부서가 내부 감사 위주로, 전교보다는 공부 위주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실행되었다. 모든 수련회가 그렇지만 금년 겨울 수련회에도 각 부서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고 금년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나간 수련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기도하며

김 태 현
(중등2부 믿음 8반)

나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사실 나는 이번 수양회 준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는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이종대 목사님의 설교, 부흥회, NEW AGE특강,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을 전보다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공동체 훈련에서는 우리 조 조원들과 협력해서 수많은 시합을 물리쳤다. 공동체 훈련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퀴즈 맞추기였다. 어설픈 몸놀림으로 몸짓을 해가며 흉내를 내는 것을 맞추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다. 부흥회에서는 이종대 목사님께서 우리 중등2부의 수련회 표어인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 이종대 목사님의 설교는 무척이나 나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다. 또한 산상기도회와 여러 기도회에서 나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꼭 참고 찬양을 부르니 아팠던 목에서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행해진 "경건이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인내하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순서를 다 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전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것같고 수양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아이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고마우신 사랑부 교사님들"

이미애
(김정만아머니, 8교구 집사)

3월 1일 5회째로 맞는 사랑부 겨울수련회가 교육관 107호에서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천국잔치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진스럽게 사랑을 갈망하는 어린이들에게 발을 씻기시던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교사님들의 모습들, 사제간의 정을 느끼며 가슴깊이 파고드는 아이들과 교사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는 교사님들, 함께 어울려서 당기며 밀어주고 사랑의 가슴을 나누는 교사님들, 그 사랑과 수고를 어떤 말로도 칭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미숙한 장에 아이들에게 그 겸손을 배울수 있는 길이 주 안에서 교육이며 또한 교육은 절대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며 현실의 소외자로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랑부 교사님들이 땀을 흘리며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지닌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주시는 충현교회이기에 늘 감사하면서 저는 이 하루도 소중히 무릎 꿇었습니다.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그리스도, 금년에도 회생과 봉사 노력과 연구, 헌신으로 한 지체를 이루시는 교사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섯살때 부터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서 봉사케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조금은 흥분된 상태였다. 무엇보다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10여년 전부터 준비시켰던 이들이 대학 입학과 더불어 금년부터 충현 오케스트라에서 풍성하게 뒀을 감사, 감격하다보니 더욱 들뜬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지난 1월 3일 찬양연습을 하기 전 본당 제해 회창실에서 새연대에 올려 놓은 개뿔을 분실한 것이다. 얼마되지 않는 현장을 비롯한 다른 소지품은 습득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가져도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주연동록증, 운전면허증, 현혈증세, 안경, 신장 기증서, 1년간 내 생활기록부, 수첩 등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게 새뿔과 교회경비실등에 수소문을 하면서 소망중에 안내하며 1주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발의 역할을 해주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개뿔해증을 교부받았고 3주일을 넘게도 기다리던 증서들은 오지않아 모든 증

명서들을 새롭게 교부받는 번거로움과 불주함속에서 설망이 컸다. 분실한 곳이 교회이었기에.

그런데 지난 2월 21일 주일 오후, 가방을 분실한지 49일만에 11교구 간사님의 전



화를 받고 교구 사무실에서 분실했을 당시 그대로 보존된 개뿔을 인수했다. 11교구 간사 집사님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다. 이때 포기했던 것을 받으니 그간의 경로야 어찌되었던 수 수께끼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애써 망각하고자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며, 그동안 내 개뿔을 보관해 주셨던 모든

연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첩에는 내 주소, 전화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각종 중서에도 내 소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교회와 300미터 거리

♣ 살며 생각하며 ♣

분실유감

이 소 현
(집사, 1교구 중헌1구역장)

의 1교구에 속해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래로 돌아가라. 또 지혜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물레 먹는 떡이 맛이 있다하는도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에가고 부지런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모두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다.

무릇 새가 그물을 찢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역시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다. 새들은 자기들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그물을 보면 도망칠만큼 현명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악의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우리는 위험한 유혹을 뚫히면서도 이정도 쯤이야 하면서 매력에 있어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죄 속으로 빠지곤 한다. 건물생심의 본능으로 사소한 물건을 탐내기도 하고, 시험시간 중에 부정행위도 하며, "선의의 거짓말이니가 용서하시겠지"하며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등등..... 우리는 이러한 악의 강한 욕망에 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유혹을 피하며, 다시 유혹을 받을 소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는가?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께서 우매무지한 인간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도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린 믿음을 지킬 것이다. "유혹의 화살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울지 않은 절에서 해매일 때,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막소식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 3월 21일에 영아들 주기도문 외우기를 실시키로 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각 가정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창이다.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3월 한달을 전 학생 심방의 달로 정하고 심방에 열심이다. 한편 부장단의 교사 심방도 3월중에 마칠 예정이다.

◆ 충현유치원은 지난주 3일 예비소집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4일에는 입학식 예배를 드림으로 93년도 1학기를 시작했다.

◆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 지도 김필수 전도사)는 지난 주일 2월 28일부터 교회 근처의 학생들과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와 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교육관 305호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지난 2월 28일 면려회 임원을 확정

하고 면려회 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 중등1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오늘 교사 월례회시 전도특강을 갖는다. 또한 14일에도 장영선 선생이 인도하는 교사 세미나를 갖는다.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신입반실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갖는다.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오늘 3월 21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하며 준비에 한창이다.

◆ 장년3부(부장 김재명 장로, 지도 운영탁 목사)는 2,3월 계속해서 반별 친교회를 갖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이인우 목사)는 3월 21일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기로 하고 각 반별로 준비에 열심이다.

◆ 사랑부(부장 송환창 장로, 지도 임성한 목사)는 사랑부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원하는 분은 교육관 105호 사랑부실로 연락하면 된다.

◆ 베드로 11전도회에서는 지난 3월 1일 충현기도원에서 15쌍의 부부가 모여 부부신앙 세미나를 가지고 가슴벅찬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살롬 경로대학 신입생 모집중

살롬경로대학은 1993년도 제1학기 학생을 모집중이다. 4월 8일을 개강일로 정하고 현재 신입생을 모집중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타고인도 가능하다. 살롬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모여 말씀을 배우고 특강 및 기타 취미활동도 하고 친교를 가지는 모임이다.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충현조기교육원에서 25인승 콤포를 운행할 기사를 찾습니다.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세제증명서
·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 1통
위의 서류각 1통씩을 사무국 총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충현전도대
수료자 총동원 모임

전도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는 그동안 교회에서 실시한 전도훈련에 교육을 받은 70인 전도대 및 충현전도대 수료자 전원을 총동원 소집한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전 교인들의 전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활발한 전도운동에 앞장서서 각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활동을 하여 전교인의 전도운동에 전인차 역할을 할 계획이다. 3월 10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모인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김장인 목사님 : 3월 8일 미주 찬양대 수련회 설교
신성종 목사님 : 3월 9일 미주 찬양대 수련회 설교
3월 13일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20주년 기념 예배 설교
2.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3월 10일 봉헌되는 봉사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4. 3월부터 실시되는 교구별 목요기도회를 통해 개인이 변화되고 교구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님 창을 열겠어요

이수현

(가브리엘찬양대 대원)

주님 저 창을 열어도 좋은지요
밖은 벌써 봄이 오려나봐요
겨우내 움추렸던 가지마다
봄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하거든요

주님 저 창을 열겠어요.....
주님의 따스한 봄 살내음을
맡기 위하여 창을 열겠어요.
주님께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기위해
창을 열겠어요
창을 열고 있으면 주님께서
살포시 내려오시니까요
살포시 내맘 속에 와닿으시니까요

새

가족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여 등록한 새신자를 교육하는 부서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는 표어 아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확신함으로 구원관을 확립케 하고, 등록 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앙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본당로

로 편성되어 매주 10시 30분부터 베다니홀에서 집회를 갖는다. 집회 순서는 10시 45분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11시 45분까지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진 다음 12

시까지 반별 친교회를 갖고있다. 새신자들은 총 26주 동안 구원의 확신, 기독교 교리, 성경 개요, 기독교 신조, 성도의 생



을 뿐만 아니라 모두 열심으로 행사에 참가하고 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

현재 530여 명이 모이는 새가족부는 25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베다

니홀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제대로 교육과 친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집회 후에는 반별 친교를 베다니홀과 갈릴리홀에서 나누어 갖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하루 빨리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좀더 큰 예배실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부에서 알리고 싶은 것은, 새가족부를 거치지 않고 청년1부, 2부, 3부, 대학부에 새신자로 바로 등록한 사람들은 꼭 등록실에 와서 교회등록을 하고 교적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인으로 교회에서 배프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결혼 신청등 교적번호를 알아야 할 때 서두르지 말고 지금 바로 등록하기를...

문정자 (주간충현 기자·충동2부교사)

■ 새가족부:우리교회 생활의 시작점 ■

새로 오는 교인은 모두
새가족부를 경유해야

대학·청년부회원 중 교적번호 없는 사람은
새가족부에서 교적번호를 부여받아야

비 우측에 있는 등록실에 가야 한다. 1부 예배에서부터 4부 예배까지 새가족을 맞이하는 등록실은 20여명의 교사들이 친절히 안내로 봉사하고 있다.

홍정민 목사의 지도 하에 현장남 전도사, 부장 강은원 장로, 부감 김구형 집사, 박영엽 권사와 80여명의 교사가 이끌어가고 있는 새가족부는 530여명이 60개 반으

족들은 모두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 배정되어 좀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성도의 폭넓은 교제를 갖게 된다.

새가족부에서는 여러가지 특별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다. 십계명 외우기, 찬송가 바로 부르기, 성경 빨리 찾기,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새신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

▼ 530여명의 재적인원을 가진 새가족부는 좁은 공간에서 애쓰고 있다. 새가족 등록실은 주일 하루종일 등록하는 새가족들로 붐비고 있다.

